

2019. 10. 28.(월) 14:00
무안군의회 소회의실

제25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의원 박막동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미국, 캐나다
2. 출장목적 : 세계적인 관광지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군 관광개발 방안 모색
3. 출장기간 : 2019. 8. 28.(수) ~ 9. 7.(토) / 9박11일
4. 보고서 작성자 : 박막동
5. 출장자 인적사항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1	의 회	의 원	박막동	
2	미래전략과	행정6급	정대술	
3	주민생활과	행정6급	임미정	
4	주민생활과	공무직	김민음	
5	세무회계과	행정6급	고영의	
6	세무회계과	세무6급	정재호	
7	세무회계과	공무직	한향미	
8	문화관광과	행정5급	강명수	
9	문화관광과	전산6급	박찬희	
10	건축과	사회복지7급	서경미	
11	안전총괄과	전산6급	조안나	
12	안전총괄과	행정7급	홍성은	
13	안전총괄과	시설7급	김태훈	
14	안전총괄과	공무직	장미령	
15	농촌지원과	농업8급	문지선	
16	신도시사업소	시설6급	박광진	
17	생태갯벌사업소	행정5급	김도완	
18	생태갯벌사업소	행정6급	김진호	
19	의회사무과	행정5급	오선희	
20	몽탄면	공업6급	김용국	
21	청계면	세무6급	김경태	

|| 목 차 ||

I. 연수 일정 1

II. 주요 출장 내용

1. 방문국가 현황 3

2. 공식 방문지 4

III. 시사점 및 제안사항 8

IV. 연수 사진 12

I 연수일정

일 자	방문도시	주 요 일 정	비고
1일차 8.28.(수)	인천 뉴욕	- 인천국제공항 출발, 뉴욕 도착(14시간 소요) - 첼시마켓, 하이라인 파크 - 콜럼비아 대학	
2일차 8.29.(목)	뉴욕	- 월스트리트, 원월드 빌딩 - 뉴욕 관광청 - 자유의 여신상 유람선 탑승 - UN 본부	
3일차 8.30.(금)	보스턴	- 하버드 대학	
4일차 8.31.(토)	퀘벡	- 몽모랑시 폭포 - 아브라함 대평원 - 삐띠 샹플랭, 프레스코 벽화, 다름광장	
5일차 9.1.(일)	몬트리올 킹스턴	- 몽로얄 공원 전망대, 까르띠에 광장 - 노트담 성당 - 천섬 유람선 탑승	
6일차 9.2.(월)	토론토 나이아가라	- 토론토 시청 - 나이아가라 폭포	
7일차 9.3.(화)	나이아가라	- 나이아가라 공원국	
8일차 9.4.(수)	워싱턴	-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공원 - 링컨기념관, 제퍼슨 기념관 - 보타니컬 가든 및 항공우주박물관	
9일차 9.5.(목)	뉴욕	-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및 미술관 - 센트럴파크 및 타임스퀘어 - 브로드웨이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10일차 9.6.(금)	뉴욕	- JFK국제공항 출발	
11일차 9.7.(토)	인천	- 인천국제공항 도착	

II 주요 출장 내용

1. 방문 국가 현황

< 미 국 >

- 국 명 :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수 도 : 워싱턴 D.C
- 언 어 : 영어
- 인 구 : 약 32,676만명(세계 3위)
- 면 적 : 약 982만km²(한반도의 44.495배)
- GDP : 약 21조 3,446억 달러(세계 1위)
- 통 화 : 미국달러(USD)
- 기 후 :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 본토의 대부분이 온대 또는 냉대 기후에 속함

○ 뉴욕(New York)

미국 북동부, 뉴욕 주의 남쪽 끝에 있는 항구도시로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권의 중심지이다. 맨하탄을 중심으로 브롱크스(Bronx), 브루클린(Brooklyn), 퀸스(Queens), 스타튼 섬(Staten Island) 5개의 자치 구역으로 나누어지는 뉴욕은 상업, 금융, 예술, 패션, 연구, 기술,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많은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세계의 문화 수도로 불리기도 하며 연간 5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 첼시마켓 & 하이라인파크

1997년에 문을 연 첼시마켓은 뉴욕 펜실베니아 역 남쪽에 자리한 첼시라는 동네의 재래시장으로 100년 된 과자공장을 리모델링한 곳이다. 시장 안 곳곳에서 허름한 파이프, 기차선로, 송수관 등 옛 공장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들은 마켓을 갤러리 또는 멋진 카페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이라인은 1930년대 미국 산업 성장 시기에 화물 운송을 위해 뉴욕 맨하튼에 만들어진 고가 철도이다. 그러나, 트럭수송의 증가와 새로운 도로망 건설로 철도 수송량이 줄게 되면서 1980년에 이르러 운영을 중단하고 방치되었다. 철거 위기에 놓인 하이라인은 “하이라인 친구들”이라는 비영리단체에 의해 지금의 공원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매년 50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첼시마켓과 하이라인파크는 뉴욕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곳이다. 건축 또는 시설물이 가진 과거 정체성을 해치지 않고 디자인 요소를 가미해 새로운 매력을 재창출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 월 스트리트(Wall street)

월 스트리트는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위치한 뉴욕시 맨하튼 구의 남부구역에 있는 거리를 말한다. 뉴욕 증권거래소, 아메리카 증권거래소, 투자은행, 국채 및 주채 거래업소, 신탁회사, 연방준비은행, 국제 상품 거래소 등이 몰려있다. 1987년 블랙 먼데이(Black Monday) 후 빠른 주식시장의 회복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청동으로 만들어 세워진 ‘월 스트리트 황소’는 증권 브로커들 사이에서 만지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속설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포토 존 역할을 하고 있다.

- 원 월드 빌딩 전망대

뉴욕시 맨하튼에 위치한 초고층 복합건물이다. 2001년 9.11테러 때 붕괴된 110층 쌍둥이 건물 자리에 재 건립된 것으로 2014년 11월에 개장한 본 건물은 높이 541m 104층 건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다.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맨하튼의 변화 과정을 담은 영상을 보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에 올라가게 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바로 이어지는 원 월드 홍보 영상과 이벤트는 관람객들의 환호성을 자아내고 있다.

-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가 기증한 것으로 발 밑에는 노예해방을 뜻하는 부서진 족쇄가 놓여 있고 치켜든 오른손에는 횃불, 왼손에는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어 미국의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고 있다. 뉴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랜드마크로 불리고 있다.

-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 메트로폴리탄 박물관(미술관)**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1846년 영국인 과학자 James Smithson의 기부금으로 세워진 세계 최대 규모의 뮤지엄 콤플렉스이다. 국립 자연사 박물관, 국립 항공우주박물관 등 19개의 크고 작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자연사 박물관은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의 주무대가 되면서 더욱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및 미술관은 186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외교관 J.제이가 파리에서 한 연설을 발단으로 설립하게 되었으며 유럽의 대미술관과 비교할 때 역사는 짧지만 학문적으로 귀중한 소장품이 급속도로 늘어 세계 굴지의 종합미술관이 되었다. 선사시대 이래의 세계 각국의 유물 총 200만점 이상을 소장하고 있으며 1998년 6월 한국관을 개관하여 400여점의 한국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다.

- **센트럴파크**

맨하튼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센트럴파크는 미국 최초의 인공공원으로 도심 속에 사는 뉴요커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1840년대 급격히 도시가 계속 팽창함에 따라 쉴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1857년 부지 정리 작업이 시작되어 1876년 정식으로 개원하였다. 공원의 지형과 식물은 매우 다양하며 공원 주위에는 전망 좋은 산책로가 있다. 동물원, 스케이트장, 노천극장, 어린이 놀이터 등이 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뉴욕 사람들은 이곳에서 여가 생활, 운동, 휴식을 취한다.

- 타임스퀘어 & 브로드웨이

타임스퀘어는 맨하튼의 많은 길들이 모이는 곳으로 미드 타운 핵심 상권이기도 하다. 24시간 돌아가는 광고판들 때문에 늦은 밤에도 대낮처럼 환하며 광고료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도 유명하다. 매년 새해 카운트다운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브로드웨이는 바둑판 모양으로 질서정연하게 놓여진 맨하튼 길을 비스듬하게 가로지르는 길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연극, 뮤지컬계를 일컫는 말로 쓰인다. 40여 개의 극장이 자리 잡고 있으며 지금도 활발하게 영화와 공연이 상연되고 있어 하루에 2만 명이 넘는 관객이 모여들고 있다.

-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이며 국제 정치·외교의 중심지이다. 어느 주에도 속해 있지 않는 연방직할지로 경제 중심은 주로 관공서 관련 업무이며 산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사당과 백악관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대사관과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의 국제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6.25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희생된 또는 살아서 돌아온 모든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구조된 병사상과 24만명의 군상이 새겨진 화강석 벽에 맞물리는 곳에 위치한 기억의 연못에는 “Freedom is not free”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추모객들에게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고 있다.

- 링컨기념관

미국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의 공적을 기려 건축한 기념관이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본뜬 건물로 36개의 도리아식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36이라는 숫자는 링컨 재임 당시 북부 연방 36개의 주를 의미한다. 기념관 중앙에는 링컨을 조각한 거대한 대리석 좌상이 있으며 좌상의 왼쪽 벽에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게티즈버그 연설이, 오른쪽 벽에는 링컨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사 일부가 새겨져 있다. 링컨기념관은 대중들의 집회가 자주 열렸던 미국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장소이며 1963년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이곳에서 연설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 캐 나 다 〉

- 국 명 : Canada
- 수 도 : 오타와
- 언 어 : 영어, 프랑스어
- 인 구 : 약 3,695만명(세계 38위)
- 면 적 : 약 998km²(한반도의 45.2배)
- GDP : 약 1조 7,391억 달러(세계 10위)
- 통 화 : 캐나다 달러(CAD)
- 기 후 : 대륙성기후, 한대성 기후, 냉대기후

○ **퀘백**

캐나다 동부 퀘백 주의 주도로 세인트로렌스 강 어귀에 발달한 항구도시이다. 영어와 프랑스어가 상용어로 쓰이고 있다. 17세기 이래의 건축물이 많아 캐나다 최대의 역사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 몽모랑시 폭포

몽모랑시 폭포는 낙차가 83m로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30m나 높은 곳에서 폭포수가 떨어진다. 웅장한 맛은 덜하지만 가늘고 길게 떨어지는 모습은 색다른 멋이 있다. 겨울에는 완전히 얼어붙어 또 다른 장관을 연출한다.

- **쁘띠 샹플랭**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변화가로 어퍼타운에서 로어타운으로 내려올 때 만나는 곳이다. 아기자기한 기념품 샵, 레스토랑, 카페 등이 즐비해 있어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로 알려져 퀘백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의 필수 여행코스가 되고 있다.

- **몬트리올**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유럽과 캐나다 각지를 연결하는 교통 중계지이다. 1844년~1849년에는 캐나다의 수도이기도 하였던 몬트리올은 주민의 64%가 프랑스계의 카톨릭 신자들이어서 성당이 많으며 거리에는 프랑스풍의 향취가 가득하여 ‘북아메리카의 파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 **다름광장**

몬트리올 구시가지 관광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광장 중앙에는 퀘백의 창시자이자 개척자인 사무엘 드 샹플랭 동상이 있으며 광장 주변에는 옛 몬트리올 금융 중심지답게 은행과 사무실이 많다. 광장으로 대중에게 개방된 것은 1900년 이후부터이며 몬트리올의 대표 관광명소인 노트르담 성당, 노트르담 거리와 가까워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 **까르띠에 광장**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방문하여 퀘백주 몬트리올 시민에게 연설을 한 것으로 유명한 몬트리올 시청이 위치한 곳으로 광장의 입구에는 이곳의 통치자였던 호레이쇼 넬슨의 동상이 서 있다. 거리에는 악사와 판토마임 연기자, 캐리커처 화가 등 예술가들이 가득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여기서 보이는 올드포트는 환상적인 전망으로 유명하다.

• 킹스톤의 천섬

동부 세인트로렌스강 위에 수 많은 섬들이 떠 있는 일대를 천섬이라고 한다. 실제로는 1,000개의 섬이 아닌 1,865개의 섬이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걸쳐있는 섬도 있다. 천섬의 섬 하나하나에는 주인이 있으며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의 백만장자들로 개인 별장을 지어놓고 여름 휴양지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크루즈를 타고 멋진 섬들을 둘러볼 수 있는데 그 중 백미는 미국령의 하트섬으로 볼트성에 전해오는 슬픈 사랑이야기는 많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 토론토

인디언어로 만남의 장소라는 뜻의 토론토는 1615년 유럽의 탐험가인 에티엔 브레일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었다. 5대호의 하나인 온타리오호 호반에 위치하고 있어 캐나다의 경제, 운수, 통신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 토론토 시청

토론토는 구 시청과 신 시청이 인접하고 있다. 구 시청은 100년이 훨씬 넘는 역사 깊은 곳으로 신 시청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가 에드워드 제임스 레녹스가 디자인하여 약 10년에 걸쳐 지어졌다. 1965년 신 시청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온타리오 정부의 법원 청사로 사용되고 있다.

신 시청은 토론토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축물 중 하나로 돔을 올린 원형의 시의회 의사당과 높이가 서로 다른 곡선형 타워 2개로 이루어져 있다. 위에서 보면 돔은 눈동자를, 호형 건물들은 아래 위의 눈꺼풀을 이룬 것처럼 보이기도 하여 시의회의 역할을 상징하기도 한다. 시청 광장은 무료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커다란 분수는 겨울에 아이스 스케이트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람들이 즐겨 찾고 있다.

- 버팔로의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는 고트 섬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동쪽은 아메리칸 폭포로 높이 51m, 너비 305m이고 서쪽은 캐나다의 호스슈 폭포로 높이 49.4m 너비 790m이다. 대륙 최대의 폭 1km인 폭포에서 매 분당 50만 톤의 물이 60m의 낙차로 떨어지는 장대한 경관은 연간 4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하다.

2. 공식 방문지

○ 뉴욕 관광청

1) 소개

뉴욕시 다섯 개 자치구를 위한 공식 관광 마케팅과 컨벤션 전담기구이다. 뉴욕시 전역의 여행과 관광 기회를 극대화하고 경제적 번영을 구축하며 전 세계에 뉴욕시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전파하는 것이 임무이다. 세계 17곳에 사무실이 있으며 비즈니스 파트너로 협력된 기업이나 기관이 1,600곳에 다다른다.

2) 질의응답

Q.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까?

A. 자금은 1,600개의 회원들의 연회비와 일반인들의 기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와 시에서 지원금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Q. 뉴욕시의 대표적이 축제는 무엇입니까?

A.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뉴욕 패션위크,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추수감사절 기간 백화점 할인행사 등을 비롯하여 코리아타운 또는 차이나타운과 같이 다양한 인종별로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곳에서 행사가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Q. 관광 활성화로 인한 많은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A. 지역성의 차이일지는 모르겠으나 뉴욕은 다국적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관광도시라는 점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에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통 혼잡이 심하여 교통 분산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Q. 레스토랑 위크 등의 행사는 식당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지, 보조금을 주고 모집을 하는지?

A. 철저하게 400개의 레스토랑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을 관광객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며 올해는 6,7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방문사진



○ **나이아가라 공원관리국**

1) 소 개

이리 호와 온타리오 호를 이어주는 강의 환경과 주변에 있는 캐나다의 역사적인 유적지를 관리하며 동시에 개발을 해나가는 기관으로 1885년에 설립되었다. 나이아가라 폭포시 관광청을 겸임하고 있으며 비영리 기관으로 자체수입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2) 질의응답

Q. 나이아가라 폭포를 개발하다보면 자연이 파괴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역 환경단체와는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A. 지금 현재 개발하는 곳은 나이아가라 공원국이 가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시(市)에 용역을 주고 주민 공청회를 거쳐 환경적인 문제 요소가 발생 시에는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Q. 나이아가라 공원 관리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유람선, 짚라인 등을 통한 관람 외에 와이너리와 연결한 트래킹, 유적지와 연계하여 전쟁을 재현한 관람 프로그램, 여성 골프대회, 폭포와 함께하는 요가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는 로컬 비즈니스업체와 MOU를 맺어 윈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Q. 비수기 기간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A. 시즌이 끝나는 11월 이후에는 빛의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력 발전소, 나이아가라 폭포시, 뉴욕시에서 지원을 받아 11월부터 1월까지 진행을 하는데 나이아가라 공원 관리국에서는 불빛 디자인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매년 불빛 및 캐릭터를 바꾸고 있습니다.

Q. 마케팅을 위해 여행사 등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없는지?

A. 지역 관공업체의 단체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색다른 프로그램은 있으나 공원 관리국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따로 없습니다.

3) 방문사진



Ⅲ 시사점 및 제안사항

1.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건축물 보전 및 ‘개발

- 우리지역의 관광개발 시 단순히 버려지고 낡은 지역을 새롭게 바꾸는 도시재생의 개념을 벗어나 과거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공존하게 하는 관광개발 방식 필요
- 우리군은 화려하지 않지만 현재 있는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 모으는 방안이라고 사료되며 사람중심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상시 찾는 관광명소로 개발
- 오래된 건축물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관광산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재투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주민들과 자원을 연계한 관광지 개발로 한번 방문으로 끝나지 않는 다시 방문하고 싶은 관광지로 개발

2.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자발적 참여 유도

- 관광산업 육성 및 축제 개최 시 군에서 모든 것을 관여하지 않고 민간단체가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으로 행사가 개최되도록 추진하여 모두가 함께 한다는 동참의식과 사명감 고취
- 우리군 축제 기간에는 축제장 인근 상가, 식당, 숙박업소, 농산물 등을 평상시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여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3.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관광 자원화

- 우리군의 문화유산에 얽힌 야사, 설화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스토리텔링화한 정보창고(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고, 남악신도시 조성(배경) 및 역사, 인문자원 등을 연계하여 스토리텔링 관광 콘텐츠로 육성
- 김춘수의 시 “꽃” 일부분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군민과 관광객이 공감할 수 있는 관내 관광, 문화, 유적지의 스토리텔링 사업 추진

4.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로고 개발

- 나이가가라 공원국에서는 폭포주변에 새로운 브랜드 스토리(Brand Story), 로고 개발 등 지속적인 변화를 시도함. 폭포 자체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폭포를 이용한 요가, 트래킹, 와인 파티 등 연중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도.
- 우리군에서도 관내 관광지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을 위한 로고를 개발하고 회산백련지와 갯벌센터 등을 어느 일정기간 1회 축제로 끝나지 않고 연중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통합관리 필요

5. 무안공항 주변 대형 아울렛 조성

- 뉴욕 우드버리 아울렛은 세계적인 유명브랜드 상품을 20~30% 저렴하게 판매하여 관광객들의 여행 필수코스로 자리 잡고 있음. 특화된 쇼핑단지를 넓게 조성하고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여 관광객들의 쇼핑시간이 부족할 정도임.
- 우리군에서도 면세점 못지않은 쇼핑타운을 무안공항 인근에 조성하여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하는 등 우리지역의 랜드마크(Land Mark)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6. 자연과 조화된 군 청사 신축으로 관광 자원화

- 우리군 청사 신축 시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먼 미래를 내다보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야겠음.
- 무안의 과거 역사, 문화, 현대가 공존하는 복합공간의 건축디자인으로 청사 내에서 군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무안의 랜드마크로 신축
- 청사를 공원과 같이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여 관공서라는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하여 페스티벌(Festival) 개최, 자기 집 마당과 같은 휴식 공간 역할을 하는 관공서의 톨 모델로 만들어 관광 자원화 마련

7. 자녀 ‘부모님 직장체험의 날’ 지정 운영 (별도 제안)

- 뉴욕 관광청에서는 방학기간 중 자녀들이 부모가 일하는 직장에 나와 하루를 보내는 프로그램을 년 2회 진행함. 이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님을 이해하고 미래 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함.
- 우리군에서도 자녀들의 ‘부모님 직장 체험의 날’ 을 운영하여 부모님의 직장생활을 보고 경험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게 하고, 미래 꿈을 간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함.

IV 연수 사진

